

## 고용노동부 고용동향 악화에 따른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 개최

- 5월 고용동향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긴급 지시
- 현장 중심의 세심한 고용상황 점검 및 본부-지방간 총력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12.(금) 11시, 차관(권창준) 및 고용정책실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들과 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5월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지시로 개최되었다. 권창준 차관은 5월 고용동향과 관련하여 일선의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고용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6.11.(목) 발표된 ‘5월 고용동향’(데이터처)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4만명 감소하여 17개월 만에 감소 전환되고, 고용률은 2개월 연속 하락(63.3%, -0.5%p)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등이 누적되면서 제조업(-14만명) 및 건설업(-4만명) 등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감소가 증가하고, 청년 고용상황이 악화(취업자 수 -25.5만명)되는 등 고용안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권창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상황이 언제 회복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일시적 경기변동이 고용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조업 등 피해기업들에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위기 징후 발생 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청년 뉴딜 프로젝트 등 추진 중인 고용안정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권창준 차관은 일선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종별·지역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고용상황을 점검하되 특히, 하청업체 등 경기상황에 가장 취약한 곳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발견한 보완 필요 사항들을 본부와 신속히 공유”하고 “본부는 필요한 대책을 유연하고 신속히 마련”하는 등 지방청과 본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신속히 돌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붙임. 차관 모두 발언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10
		담당자	서기관	이상혁	044-202-7292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각 지역 일선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  
그리고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쓰고 계신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5월 고용동향 결과는  
우리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합니다.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4만명 감소하여  
1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여파로 비용 부담이 가중된  
제조업에서 14만명, 건설업에서 4만명 이상 급감했고  
청년 고용률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  
고용상황이 언제 회복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고용상황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중동전쟁으로 어려워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제도를 집중 지원하여  
일시적 경기상황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고용위기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정정예산 등으로 마련된  
위기지역, 청년 뉴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점검하고

지침이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유연하고 신속하게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선 현장 역할이 위기 상황 일수록 중요합니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라는 말처럼  
각 청장님들께서는 관내의 세세한 곳까지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조업 밀집 지역의 고용유지 현황은 어떤지  
건설 현장이 받고 있는 충격은 어느 정도인지,  
업종별·지역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청업체 등 경기상황에 먼저 영향을 받는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방청과 본부가 한몸처럼 움직여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고용 최전선에서  
이번 위기 대응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